

영산포는 변신 중

근대유산·원도심 정비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영산강의 옛 항구 나주 영산포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배길 무역의 중심이었던 나주 영산포가 최근 '홍어의 거리' 조성과 일제 강점기 근대 유산 정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일본인 대지주 구로즈미 이타로의 가옥.



◀영산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영산포구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옥상 등대.



원정동 거리에 조성된 역사박물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영산포(梁山浦) 명칭은 신안군 영산도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서 개척한 포구라 해서 영산포라고 불렀다는 말이 전해져오고 있다. 영산포는 고려 때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물자교역의 중심지였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도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당시 국제항구 역할을 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영산포구에서 포교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인해 뱃길이 끊기면서 포구 기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산포가 원도심 리모델링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영산포구에는 국내에서 내륙에 유일하게 설치된 등대가 있다. 지난 1915년에 만들어진 영산포 등대(등록문화재 제129호)는 수위관측과 등대용으로 사용돼 오다가 뱃길이 끊어지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황포돛배 선착장에는 왕건호와 황도돛배 2척이 정박해 있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풍호 나루터에 내려 백호 박물관과 천연염색 박물관,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영산강의 굽이굽이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나주 영산 테마파크와 다시면 회진에 이르는 강변을 만끽할 수 있다. 면포 황도물을 들인 돛을 달고 서남해안의 소금과 젓갈, 해산물 등을 영산포까지 운반하던 영산강의 주요 운송수단이던 황포돛배가 이제는 관광객을 나르고 있는 것이다. 운항 체험요금 및 운항시간은 황포돛배 1·2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7회 운행하며 3명 이상 타야 출발한다.

또 왕건호는 단체 28명 이상이나 승객이 많을 때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인 1만원·어린이 6000원이며, 할인 혜택은 나주시민 50%와 무료조건은 같다. ◇혁신도시 건설로 주목받는 영산포=나주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늘면서 영산포가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황포돛배 유람선을 추가 건조 중이다. 추가 건조되는 유람선은 강선 40t급(20노트)으로 승선인원 118명이고, 죽산보에서 영산포를 거쳐 승천보까지 21km 운항할 예정이다.

인근의 근대 유산도 정비된다.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붉은 벽돌건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는 지난 1908년 일제가 조

선의 경제를 강점,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일제는 1909년 영산포 지점을 설치하고 농지를 약탈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나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했던 일본인 대지주 구로즈미 이타로(黒住猪太)의 가옥은 영산포의 근대 건축물로 지난해 시에서 5억7000만원에 구입해 리모델링했다. 시는 연못과 정원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은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산포 홍어의 거리로 이어지는 '원정동 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성한 상가다. 당시는 영산포구에 인접해 배가 들어오면 뱃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산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어의 거

리'도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다. 이곳에서는 홍어 삼합과 홍어 무침, 또 홍어 튀김, 홍어전, 홍어찜, 홍어회 등 홍어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나주시는 영산동 옛 선창 일원에 사업비 35억여원을 들여 '영산포 식도락(食道樂) 거리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전신주 지중화와 근대 선창(船塢)거리의 가로환경을 정비해 영산포 포구자원을 활용한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산포 품물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자원이다. 나주시는 11억7000만원을 들여 영산포 품물시장을 내년 하반기까지 현대식 장육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건물.



황포돛배선착장에 왕건호와 황포돛배가 정박해 있다.

나주 임씨 백호 문중, 임제 선생 진품유물 시에 기증

나주 임씨 백호 문중이 조선 중기 문신이자 명문장가인 백호 임제(1549~1587) 선생의 진품유물을 나주시에 기증했다. 나주 임씨 백호문중 임재준 도유사는 지난 13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백호문학관에서 열린 백호 임제 선생의 소설 '서옥설' (犀獄說) 출판 기념회장에서 석림정사 현판과 견사통문, 서간문 등 진품 3점의 진품 기증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옥설' 출판 및 백호 문학관의 박물관 등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품 3점은 백호 문학관에 보존되며, 백호문학관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옥설'은 나라의 창고에서 곡식을 갇아먹다 발각된 늑교환한 죄를 의인화해 당시 사회에서 행세하는 자들을 풍자한 한문체 소설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임씨 백호문중의 임재준(왼쪽) 도유사가 지난 13일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백호임제 선생의 진품 유물을 전달하고 있다.

나주목사 관아에 '소원의 북 우체통' 설치

조선시대 나주목사(牧使)의 관저인 금학헌(琴鶴軒) 대청마루에 소원을 담은 편지를 넣는 '소원의 북 우체통'이 최근 설치됐다. 나주시는 학봉 김성일(1538~1593) 선생이 나주목사로 부임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조선시대 나주목사 관아의 정문인 정수루에 설치한 북의 형태와 스토리를 재현해 '소원의 북 우체통'을 설치했다. 시는 우체통에 관광객들의 소원편

지를 보관했다가 매년 12월 31일 열리는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때 소지(燒紙)행사를 통해 태울 계획이다. 금학헌은 나주목사가 머물던 살림집으로 지난 2009년부터 관아숙박 체험장으로 개방, 운영되고 있다. 마당 한편에 자리한 수령 500년의 벚락 맞은 팽나무를 안고 소원을 빌면 꿈이 이뤄진다는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iung@



최근 나주시 금계동에 자리한 나주목사 내아(內衙=안채)를 찾은 관광객들이 '소원의 북 우체통'에 넣을 소원 편지를 쓰고 있다.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운	673-4698
동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항'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